

7만5천 여명에 간염검사와 예방접종

한국수출산업공단 의보 301개 사업장



◀ 한국수출산업공단 서울지구 의보 산하 사업장 근로자 간염검사현장

건협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국수출산업공단단지 서울지구 의료보협조합과의 협력 하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단본부, 백산전자, 성도섬유를 비롯해 총 301개 사업장 근로자 7만5천9백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검사사업은 간염검사에서 마지막 접종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1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건협 검사원들이 현지 출장해 1일 평균 15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검사요원은 의사, 병리사, 간호사를 포함해 홍보요원, 접수요원 등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검진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기동성있게 움직이고 있다.

결과통보는 각 개인에게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밀봉통보되며, 검사통계자료는 조합에 통보되어 공단 근로자의 건강상태 분석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간염검사사업은 어느때 보다도 의보조합, 사업장, 건협이 3위일체가 되어 능률적인 분담 체계를 형성,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협에서는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작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사업장 내에서도 생산라인별로 검사요원들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어 가장 능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사사업에서는 수출공단내의 사업장 중 지방에 지부가 있어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8천80명에 대한 검사도 건협 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

건협, 상반기 분야별 직원 연수 교육



◀ 교육생들의 실무 능력개발과 능동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88년도 상반기 직원 연수교육

健協에서는 '88년도 상반기 분야별로 직원들이 연수 교육을 경남 부곡에서 실시했다.

기술직(1월27일~1월30일), 사업 및 홍보직(2월3일~2월6일), 서무직(2월10일~2월13일)으로 각각 나누어 3박4일간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건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에 그 초점을 두었다.

기술직의 경우, RPHA법에 의한 HBe Ag, Ab 및 AIDS 검사, 정도관리에 관한 강의, 사업 및 홍보직에서는 마케팅이론, 경제변화에 따른 보건예방사업의 방향, 보건요원 실무 지침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서무직에서는 각종 서식의 능률적운용, 제안제도의 운영, 각종 문서 및 장비 관리, 직원 복지 향상 등에 관한 강의를 있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

은 강의 일변도적인 교육에서 탈피,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분야별 전문 내용에 대한 분임토의가 그 예이며, 또한 사업 및 홍보직의 경우, 평소 사업추진 및 홍보활동에 있어서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체 교육생이 참여, 실시한 Contact testing을 통해 실제 업무상의 애로점, 개인적 장단점을 파악·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건협 서병설 회장은 훈시를 통해,『지난해 건협은 양적·질적 성장을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자리를 굳혔으며, 앞으로는 단순히 질병의 조기발견의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측면으로서 어린이 성인병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즉 성인병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저연령층에서부터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

사업의 조기착수 및 활성화 방안 토의

- '88 제 1차 사무국장 회의



◀ '88년도 제 1차 사무국장회의에서 서병설 회장이 향후 건강관리의 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健協 '88년도 제 1차 사무국장회의가 지난 1월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지부에서 실시됐다.

이번 사무국장회의는 '88년도 건강관리 및 기생충관리사업의 조기 착수와 활성화 방안을 토의·모색키 위한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관영 사무총장은 『무진년 한해를 “百年大計를 다지기 위한 기반 확충의 해”로 정하고 내적으로는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투철히 갖도록 노력하고 외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전문화와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건협에 있어서의 세 기둥인 기술직, 사업 및 홍보직, 행정사무직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평형이 기운다면 균형을 잃게 되어 건강관리사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 국민건강증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특강으로 최진학 건협부회장이 “공무원 건강검진과 우리의 대비,” 신석우 보사부 보건교육과장이 “국가보건” 정책에서 본 건강관리,”에 관한 강의를 했다.

◎...건협인사 이동

건협은 '88년 2월 1일자로 직원에 대한 인

사발령(승진 및 신규)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안은 전직.

- 제주도지부 서무과장직무대리 한남석(제주도지부 계장)
- 전북지부 3급 임상병리사 이영숙(전북지부 4급 임상병리사)
- 대구지부 주임 조홍원(대구지부 서기)
- 경기지부 주임 나서경(경기지부서기)
- 경남지부 서기 하동식(경남지부관리원)
- 경기지부 계장 최진명(신규)
- 부산지부 주임 박건고(신규)
- 대구지부 서기 김홍창(신규)
- 대구지부 방사선사 김영태(신규)
- 경남지부 임상병리사 전병희(신규)
- 경남지부 임상병리사 류재호(신규)
- 충남지부 서기 신옥희(신규)

전북·경북지부에 우수지부 표창 및 특별 장려금

- '87년도 지부별 운영평가 결과



진협 전북지부와 경북지부가 '87년도 우수 지부 표창 및 특별장려금을 받았다.

'87년도 지부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각적인 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다는 평가가 내려져 이번 상을 받게 된 것이다.

지부별 운영평가는, 각종 사업 실적과 세입, 세출 실적 등을 일정 비율로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특별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 이번 시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협회 제반 사업의 올바른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보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전북·경남지부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월22일에 있는 제 1차 사무국장회의에서 있었다.

심장병, 고혈압, 암 등 성인성 질환 사망이 48.1%

- '86년도 우리나라 死因구조

지난 1월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6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31.1% 위암·간암 등 각종 암에 의한 사망이 16.36%로 이들 성인성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81년 35.91%에서 약 12.2%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은 그 비중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5대死因은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질환, 폐순환질환 및 심질환,

위암,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증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공히 위암, 간암에 의한 사망순위가 1위이며, 여자의 경우, 자궁암, 골수암, 유방암에 의한 사망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死因구조가 변해 가는 것은 경제발전애 따른 생활, 문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후진국형의 감염성 질환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현대 문명과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술·담배 사용의 급증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